

연중 제 17 주일

제1독서 : 창세 18, 20-32

제2독서 : 골로 2, 12-14

복 음 : 루가 11, 1-13

술정이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루가 11, 9)

강론

나의 기도

최용준 신부/장계 성당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전에는 할 말도 많고, 복잡한 것도 많았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청하는지도 모르고 내 생각대로만 주님께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무겁게 짓누르고 한없이 갈망하며 무언가 채워지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그 다급함들이, 지나고보니 부질없는 욕망의 산물이었음을 인정한다. 내 그릇이 작은데도 많이만 넣을려고 했던 노력도 마찬가지이다.

지칠대로 지치고 난 다음에야 찾아오는 평온함, 그 위에다 나는 나의 기도를 놓았다. 옛날 같으면 하지도 않았을 그런 기도를 나는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 내게 주어진 처지에 무엇인가를 더 보탤려고 하지 말자. 또 빼려고도 하지 말자.

나는 그렇게 다짐하면서 기도 한다.

둘, 섭리에 순응하고, 그 뜻을 깨우치고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한다.

셋, 내 생각은 짧고, 결심은 불안하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라는 소망뿐.

그런 심정으로 기도한다.

무엇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딱히 바랄 것도 없다. 그러나 절망이나 체념같은 것은 아니다. 하기는 한다.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지나간 세월이 아깝다.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은 것만 같다. 그러나 굳이 내 것으로 삼아 하지 않으니 마음은 편하다.

다만 조심스레 바램이 있다면 주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가 언제부터인가 나의 기도가 되어있기를, 그렇게 바래보는 것이다.

소리

이쪽과 저쪽, 너와 나

전에 없던 엘니뇨라는 날씨 이변이 생겨서 지구 곳곳에 피해가 이어졌다.

날씨 이변은 알고 보면 요즘에 새로 나타난 일이 아니고 옛날부터 있던 것인데 지구촌이 서로 소식 전달에 신속하다보니 널리 알려졌을 뿐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빨라진 것이 날씨 소식만인가.

우리 영혼의 세계에도 마찬가지 이치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은 아니니까.

월드컵 축구랑 박세리 골프랑 박찬호 야구가 모두 몸으로 하는 운동경기들이지만 그 몸을 움직이는 것은 정신이고 마음인 것을 생각하면, 골프는 이기고 축구는 지고 한 것이 금방 슬프고 기쁘고 할 것까지는 없다고 하겠다.

보이는 축구가 졌을 때, 안 보이는 어떤 것은 이기고 있는 것도 아니겠는가? 그래서 세상의 온갖 일들은 안 보이게 또는 보이게 얹혀서, 이쪽 원인이 저쪽에 결과가 되고 그 반대도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고 싶다.

슬플 때 기쁨을 내다볼 일이고, 잘될 때 못되는 것을 볼 일이다.

내가 불순한 마음을 먹는 순간 저쪽에서 그 마음의 열매가 독기운을 풍기기 시작하고, 내가 모르는 선한 사람 하나가 남몰래 희생할 때 내 잘못이 내 눈에 드러나 뉘우칠 수도 있다. 모든 것이 연대되어 움직이는 세계의 신비로움이다. (정)

술정이 산책



성서의 오솔길

마카베오 상·하권

박찬길 신부/사목국장

마카베오 상·하권은 구약의 마지막 역사서에 해당한다. 사무엘서나 열왕기, 역대기와는 달리 이 두 권은 완전히 별개의 책이다. 마카베오서라고 같은 제목이 붙은 것은 비슷한 시대(상권은 기원전 100년경, 하권은 기원전 124년경)에 쓰여졌고, 일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마카베오서는 희랍의 정치적, 문화적 영향을 받아 이스라엘의 신앙과 참 하느님을 섬기는 종교가 지상에서 사라질 뻔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마카베오 상권은 하느님의 백성에게 그리스 문명을 강제로 주입시키려는 셀류코스 왕가의 노력에 맞선 유다인들의 저항의 역사다. 이 저항운동은 한 사계의 가문에 의해서 시작되는데, 마파디아와 그의 다섯 아들이 주동이 된다. 다섯 아들 가운데서 유다는 힘의 장사이고 유능한 지휘관으로서 그에게 '마카베오'라는 별명이 있었다. 이 별명은 그 집안 전체에 계승이 되었고(마카베오家), 그가 살던 시대(마카베오 시대)와 그 시대를 대상으로 하는 책(마카베오書)에까지 붙게 되었다. 마카베오 상권은 약 40여 년의 역사를 담고

있다.

마카베오 하권은 저자가 언급한 대로 키레네 사람 야손이 쓴 방대한 작품을 요약한 것이다. 안티오크스 4세의 박해와 유다 마카베오의 영도하에 전개된 유다인들의 반란에 대한 일화들을 수록하고 있다. 또한 기원전 176년경부터 160년까지의 유다 마카베오의 생애가 서술되어 있다.

하권은 문체나 문학유형이 상권과 크게 다르다. 마카베오 상권은 엄밀한 역사서이다. 사실만을 엄정하게 기술한다. 그러나 하권은 사실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저자의 독특한 구미대로 글을 엮으며, 나아가 도덕적 교훈까지 제시하려 한다. 저자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하느님이 당신 백성의 행적과 역사 속에 현존하신다는 사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성실한 이스라엘인은 상을 받고 큰 죄인들과 박해자들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97년 6월 15일부터 연재된 구약성서 안내가 이번회로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신부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998년 성령의 해

“새 날 새 삶” 운동 지침

녹은 슬그머니 슬지만 그 녹을 벗기려니 몇 배의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대회년과 새로운 천년기를 잘 맞고 싶어서, 이를 계기로 한 번 주님 안에 새로 태어나고 싶어서 나름대로 몇 가지 목표와 계획을 세워놓고 애를 쓰고 있지만 이미 너무나 익숙하게 젖어 있는 세상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 때문에 예수님이 정신과 가르침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사람을 대하고 일을 처리하고, 도대체 비신자와 다를 것이 없는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보내고 마는 순간들에 안타까움을 느끼곤 한다. 과연 교황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회년을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한다.

그러나 된장. 고추장이 항아리에 담긴 채 자신을 쑥이는 진통과 기다림의 긴 시간을 보낸 다음에야 그 깊은 맛을 내듯이, 그리스도의 정신도 우리 존재와 생활 안에 깊이 스며들기 위해서는 성령의 활동에 자신을 맡기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르익는 기다림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대회년 맞이를 위한 직접적 준비의 두 번째 해, 그 중반을 지나고 있는 지금은 새로운 무엇을 더 시작해야 하는 때이기 보다 이미 우리 안에 담겨진 이 쇄신의 정신이 더 깊이 스며들도록 심화시

켜야 하는 때이다. 이 심화를 위하여 대회년 주교특별위원회가 최종 발표한 「새날 새삶」운동의 지침들을 우리 삶의 지침으로 삼아 쇄신을 향한 대행진에 함께 발맞추도록 하자.

“나부터 새롭게”

-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기
- 하느님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 익히기
- 제자리 찾기 4. 입장 바꿔 생각하기

“참된 가정 이루기”

- 가족이 함께 기도하기
- 생명의 신성함을 깨닫고 존중하기
- 가족이 함께 사회에 봉사하기

“좋은 이웃 되어 주기”

- 용서 청하고 용서하기 2. 서로 돋고 나누기
- 평화를 위하여 헌신하기

“함께 가요, 우리”

-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일하기
- 타종교를 존중하고 그리스도교의 재일치를 위하여 기도하고 힘쓰기 3. 민족화합에 앞장서기
- 자연을 존중하고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기

기쁜고, 윤종의 대회년 2000년 대회년 1년 5월 5일을 날았습니다.

대한(페인트)인테리어
황토방으로 바꾸세요.

- 황토방(주택, APT) 신축, 보수공사 전문업체
- 아파트공사, 전체 칠, 페인트 공사 전문
- 김익화(요셉) · 이영희(세실리아)
☎ (0652) 252-4874, 226-0982~4

이(치아)에 관한 모든 것
예원부부치과
에서 상담 및 치료
턱관절 장애 특수 크리닉
코골이, 치아표백, 이갈이
유 영 대(보나벤투라)
이 유 미(에피파니아)
호성동 풍년제2 2층 주공APT옆
☎ 244-2875

편안 눈 밝은 세상 —
정읍 한독 안경원

안경사 이 수 열(필레몬)
박 은 숙(레지나)
우체국 정문앞 이안과 1층
☎ (0681) 538-3333

알뜰 가구 할인매장
전자제품, 가구, 침대, 쇼파

생활용품 일체
중고에서 → 신풀까지
활 일 수(프란치스코)
김 영 선(글 라 라)
의산 쟁방을 사거리에서→삼례가는 길
☎ (0653) 832-8245

1998년은 “성령의 해”입니다.

궁금해요

십자가의 길은 꼭 14처가 모셔져 있는 성당에서만 해야하나요?
아니면 각 가정에서 해도 되나요?

원래 십자가의 길은 예루살렘에 직접 가서, 예수님이 재판 받으신 자리부터 돌아가신 자리까지 순례하면서 바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마다 예루살렘으로 직접 가서 기도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담은 성화나 성상 앞에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지에서 바친 기도와 같은 효력을 얻게 된다고 교회가 발표를 했지요.

처음에는 정해진 곳에서 제작하고 정해진 성당에서만 바치도록 했지요. 하지만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에는 어디서나 십자가의 길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장소를 가리지 않게 되었지요. 또 성당에 갈 수 없는 노약자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신부님에게 십자가의 길 축복을 받은 십자가 앞에서 기도 드리면 됩니다. 그래도 역시 예수님 고난부터 부활까지의 기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성당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어렵다면 각 가정에서 해도 됩니다. 은혜는 하느님이 주시는 것이고, 다만 우리는 기도할 때로 이니까요.

교구·제 단체 소식

- 교구사제양성후원회 미사 : 7월 27일(월), 오전 10시 30분, 가톨릭센터
- 전주 제21차 선택주말 : 7월 31일(금)~8월 2일(주일), 장소 - 나바위 피정의 집,
대상 - 20세 이상 젊은이, 참가비 - 5만원
신청 (0652) 85-0041(교육국)
- 은혜의 밤 철야기도 : 7월 31일(금), 오후 11시, 전동성당
- 성모기사회 월례회 : 8월 1일(토), 오전 10시, 효자동성당
- 가톨릭 문우회 모임 : 8월 1일(토), 오후 3시 30분, 가톨릭센터
- 무주 구천동 미사 : 매주일 오전 6시 30분, 무주리조트앞 왕성가든
- 지리산 관광객을 위한 미사 : 매주일 오후 2시 30분, 인월공소(인월중학교 앞)
- 교구 혼인법원 개원일 : 매주 월, 수, 금(오전 9시~오후 6시),
화(오전 10시~12시)
Tel : (0652) 85-0041~3, Fax : (0652) 88-8727
- 본당 명칭 변경 : 서전주지구의 '효자우전'본당이 '우전'본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십시오.

매일매일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아도

하루라는 시간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길목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그것을 기억에 떠올리십시오.

일상적인 삶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십이 (1303) 김명오



경로수녀원 성소모임

8월 8일(토) 오후 4시~
9일(일) 오후 5시

주제 : 부르심

장소 : 소양해월리 경로수녀원
문의 : (0652) 243-1440

성소피정

일시 : 1998년 8월 8일~9일
장소 : 부산 예수성심전교수녀회
본원
주제 : 그리스도인의 자유
신청 : (051) 581-3103~5
참가비 : 10,000원
준비물 : 세면도구, 미사도구,
성서, 청소년성가

신선하고 맛좋은 계림마을닭
기린유통

(양계축협 덕진특약)
신선육, 삼계, 단체주문 전문
최장춘(아오스팅)
최용배(리우렌시오)
☎ (0652) 88-8658
017-654-8659, 017-655-8658
Fax (0652) 84-8658

행복 웨딩 스튜디오

웨딩앨범 제작, 아기·가족사진
드레스, 메이크업
정진우(아모스)
정성이(레이아)
☎ (0652) 471-5557, 465-4996
:교우분들께는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극동주유소 사거리 챔인아트 맞은편

동보한의원 동부약국

최첨단 의료시설 및 주차장 완비
원장 김경환(파비아노)
약사 범순복(안나)
의산시 영동동 천주교회 옆
☎ 한의원 (0653) 52-4666
약국 (0653) 841-7217

LG 에어컨 파격세일

15~26% 할인+6회 무이자
식당용 냉장고 17개월 무이자
냉난방기 상담 환영
백제로 빙상경기장 맞은편
원승연(도밍고)
☎ (0652) 241-2000

■ 서전주지구 본당소식 ■

삼천동 주임신부 225-0397 사 무 실 225-0396 주임신부 오 성 기
F A X 222-4954 수 녀 원 226-3487 사목회장 심 성 택

◎ 주님의 날을 기도와 친교의 시간으로 지냅니다.

1. 모임 : ① 전례부, 홍보부, 테니스회, 청년회 - 교종미사 후
② 청년회 - 저녁미사 후
③ 동그라미 불령회 - 27일(월) 후 8시
④ 레지오 꾸리아 - 2일(주일) 교종미사 후
2. 중·고등부를 위한 현금 : 오늘 2차현금 있음
3. 사랑 나눔 운동 : 어려운 초·중·고생 돋기 사업, 복지부장에게 연락
4. 첫영성체 교리 : 어린이 세례 및 첫영성체 교리 - 28일부터 시작
5. 참회예절 : 29일(수) 미사중에 있음
6. 유아 세례 : 29일(수) 저녁미사 후에 있음.
7. 성령기도회 : 30일(목) 저녁미사 후에 있음
8. 병자 방문 : 31일(금) 후 2시부터 진달래마을 미사는 후 4시 30분
9. 예비신자 교리 : 매주 주일, 수요일, 목요일에 있음.
10. 감사 : 초·중·고 여름 신양학교에 도움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1. 특별 현금 : 금주봉헌자 - 2명 40만원
12. 교무금 봉헌 : 신림 및 월남을 부탁드립니다.
13. 금주 전례 : 해설 - 김학덕, 독서 - 박우철(프란치스코) 부부
봉헌 - 한상갑(바오로) 가정
14. 차주 전례 : 해설 - 박영춘, 독서 - 변대현(사도요한) 부부
봉헌 - 구기남(야누아리오) 가정

□ 지난주 봉헌금 : 1,633,810원 □ 교무금 : 3,112,000원

서신동 주임신부 74-9261 사 무 실 74-9260 주임신부 오 혼 택
F A X 74-9260 수 녀 원 74-9262 사목회장 유 춘 응

◎ 예비신자 배가운동에 우리모두 적극 참여합시다!

- * 예비신자 모집 : 7월 28일(화)까지 모셔옵시다.
- ① 주부반 - 화요일 전 10시 40분 ② 직장반 - 화요일 후 8시
- ③ 중·고생반 - 토요일 후 5시 40분

1. 금주 모임 : ① 애령회 - 공식미사 후, 1회의실
② 방주회 - 공식미사 후, 4회의실
③ 청년공동체 - 저녁미사 후, 4회의실 ④ M.E 모임 - 후 7시 30분
2. 주간 모임 : 동산회 - 27일(월) 전 10시, 성당에서 출발
3. 차주 모임 : 요아킴회, 안나회 - 공식미사 후
※ 차주 - 빙천시오회비 납부일
4. 복사단 단합대회 : 30일(목) 전 8시 30분 출발, 백운계곡
5. 초·중·고등부 교리 방학 : 8월 1일(토)~22일(토),
개학 - 30일(토), 토요일 어린이미사 - 후 4시, 종전과 같음
6. 감사 ! : 초·중·고동부 신양학교에 도움주신 분들께
7. 전입가정 환영! : 쇄원백(프란치스코) T. 252-2089, 10구역 3반
8. 부지현금 2차신립 감사! : 최현우 10만, 김대식 10만
누계 - 6,690,000원
9. 독서 : 금주(새벽) - 김문태, 임순옥, 차주 - 황대진, 오정순
(공식) - 박영호, 김영숙, 차주 - 김재희, 손순임
10. 미사 안내 : 금주 - 로사리오의 모후Pr., 차주 - 천상의 어머니Pr.
11. 주차 안내 : 금주 - 모든 성인의 모후Pr., 차주 - 바다의 별Pr.

□ 지난주 봉헌금 : 1,967,000원 □ 교무금 : 2,618,000원

용머리 주임신부 88-3872 사 무 실 87-0441 주임신부 박 기 준
수 녀 원 81-0441 사목회장 최 공 열

◎ 주님을 부르던 날, 당신께서는 제게 응답하셨습니다!

1. 모임 : ① 꾸리아, 요셉회, 사라회 - 오늘 공식미사 후
② 테니스 - 다음주 후 3시, 해성학교
③ 사목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신양학교에 협조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3. 초등부 복사, 전례단 연수 : 30일(목), 전 8시 30분까지 성당으로
4. 창립을 축하합니다 : ① 성모회 - 홍동자(수선나)
② 성심회 - 유인희(빅토리아)
③ 대건회 - 오직화(아브라함)
5. 휴가철에 신앙인의 의무(미사참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합시다.
6. 다음주일 : 성소후원회비 납부일
7. 차주 전례 : 해설 - 정희수, 독서 - 황금석, 이수자
8. 전입가정 환영합니다 : 오윤길(펠라도), 송수종(베드로),
정성문(스테파노), 박희정(본시아노),
김정자(엘리사벳), 맹세창(바오로)
고영라(엘리사벳)
9. 청소봉사 : 5구역 전체

□ 지난주 봉헌금 : 1,224,150원 □ 교무금 : 1,625,000원
□ 신양학교 2차현금 : 519,600원

화산동

주임신부 221-9843 사 무 실 221-9842 주임신부 이 성 우
F A X 221-9842 수 녀 원 225-3675 사목회장 서 통 홍

- ◎ 주님을 부르던 날, 당신은 제게 응답하셨습니다.
- ◎ 성전신축현금 신립금을 서둘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초·중·고 신양학교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금주 모임 : 성모회 - 낮미사 후
※ 음반보급 활동 - 대구교구 큰고개 성당, 광주교구 산정동 성당
2. 예비신자 교리 : ① 성모승천반 - 28일(화), 29일(수) 후 8시
② 성탄반 - 29일(수), 30일(목) 후 8시
3. 성가연습 : 31일(금) 후 8시
4. 사목회 : 8월 1일 후 7시 30분
5. 차주 모임 : ① 꾸리아 - 전 9시
② 편집분과, 애령회, 울뜨레야 회의 - 낮미사 후
※ 성전신축 2차현금

6. 성모승천 영세반(8월 15일) 피정 : 8월 9일(일) 낮미사 후,
되개공소 ※ 대부·도회장 분들도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청소 봉사 : 8월 1일(토) - 동정 마리아Pr.
8. 폐품 정리 : 8월 1일(토) - 사랑하을 모후Pr.
9. 화단정리 : 8월 8일(토) - 상아탑Pr.
10. 금주 전례 : 새벽 - 유회정, 낮 - 홍정의, 저녁 - 정인자
11. 차주 전례 : 새벽 - 곽순우, 낮 - 이영순, 저녁 - 이영숙
※ 폐지수거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038,670원 □ 교무금 : 1,633,000원

□ 지난주 신축현금 : 2,870,000원

효자동

주임신부 223-3824 사 무 실 223-3821 주임신부 서 정 현
수 녀 원 223-3822 F A X 223-3821 사목회장 임 해 건

◎ 쉬고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1. 금주 모임 : ① 꾸리아 - 29일(수) 전 10시
② 성모기사회 - 8월 1일(토) 전 10시
2. 차주 모임 : ① 성체봉사자 모임 - 8월 4일(화) 전 12시
② 구역봉사자 모임 - 8월 5일(수) 전 10시 30분
③ 사목회 - 8월 7일(금) 후 8시
④ 예루살렘회 - 8월 8일(토) 전 10시
3. 미사시간 변경안내(8월 1일부터) :
주일 - 새벽 6시, 전 10시(공식미사), 후 7시
월, 수, 목 - 새벽 6시, 화 - 후 7시, 금 - 전 10시
토 - 후 4시(어린이), 후 5시(중·고, 특전미사)
4. 감사 : 초중고 여름 신양학교를 위해 애써주신 자모회원과 도움을
주신 여러 교우님들께
5. 환자 봉성체 : 8월은 쉽니다.
6. 복음화 주진위위원회 첫모임 : 26일(일) 공식미사 후
※ 선교부장, 구역부장, Co., Cu. 단장님 참석 요망
7. 이웃사랑 기금 : 12일부터 19일까지 525,000원
※ 감사드립니다.
8. 다음주 미사안내 및 차(茶)봉사 : 성당주변 구역

□ 지난주 봉헌금 : 1,228,810원 □ 교무금 : 1,993,000원

우전

주임신부 221-3712 사 무 실 221-3711 주임신부 서 석 구
보좌신부 226-0443 수 녀 원 223-0715 보좌신부 강 호
F A X 226-1044 사목회장 강 영근

◎ 성전신축을 위한 목주기도 100만단 봉헌 : 누계 - 884,410단

1. 금주 모임 : ① 사목회 - 저녁미사 후
② 승리의 여왕Cu. - 전 9시, 소성당
③ 요셉회 - 공식미사 후
2. 미납된 신축현금은 속히 완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지난주 신축현금 봉헌액 : 4,125,000원(18세대)
4. 중·고생미사 변경 : 8월 1일부터 토요일 후 5시에 있습니다.
5. 본당 면칭변경 : "효자우전본당"에서 "우전본당"으로 변경
6. 초등부 신양학교 : 27일(월)~29일(수) 성당
30일(목)~31일(금) 물놀이, 순창 담동초등학교
7. 전입가정 환영 : ① 죄병권(시몬) - 만절리 구역
② 죄기준(바오로) - 롯데2차
③ 김태화(스테파노) - 중앙반
8. 차주 : 천주의 모친Cu., 사제양성 후원회, 성체강복, 봉성체
여성분회
9. 금주 전례 : 해설 - 김낙완, 독서 - 변효석, 박유덕
봉헌 - 임창수, 권정희 부부
10. 차주 전례 : 해설 - 이한은, 독서 - 김영호, 강남주
봉헌 - 전문기, 장선자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2,903,490원 □ 교무금 : 2,926,000원

“쉬고 있는 교우들께 숲정이를 전달합시다!”